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의 토대를 다듬어 대학원생들의 연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이지민 기자)

존중과 소통 속에 지속 가능한 문명 교류 연구

이지민 기자 delicado@khu.ac.kr

#우리학교 8개 교육단(팀)이 4단계 BK21(BrainKorea21)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우리신문은 다섯 번째로 ‘글로벌 문명교류사 교육연구팀’의 팀장인 성춘택 교수를 만났다.

‘글로벌 문명교류사 교육 연구팀’(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은 4단계 BK21 미래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팀 중 하나다. 미래인재양성사업은 핵심 학문 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의 팀장을 맡은 성춘택(사학) 교수는 “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 뿐 아니라 사학과 전체에 대한 지원과 장기 발전에 조그만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현재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은 문명이 어떻게 다른 문명과 관계해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당 팀은 성 교수까지 총 5명의 사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의 팀명과

주제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진다. 바로 ‘글로벌(global)’이다. 팀의 이름에 포함된 ‘문명’은 대중적으로 친숙한 개념이다. 성 교수에 따르면, 이런 문명은 ‘외부와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 문명이란 한 지역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외부 교류를 통해 현재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서양의 문명이 발전할 때, 동양에서는 청나라의 문명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함께 비교할 수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며 “문명은 외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는 곧 세계화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문명교류사 앞에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같은 이치다. 성 교수는 “현대 사회는 세계화가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계라는, 보다 넓은 이슈에 몸을 담그면서 문명교류사는 다시 ‘지역’이란 개념에 이르게 된다.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대 지식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를 희망한다.

해당 팀이 주제 선정 과정에서 초점을 둔 것은 ‘지속 연구 가능성’으로, 이는 팀의 지향점과 맥락을 함께 한다.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 것엔 “모든 이들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의 주제와 구성은 단번에 정해졌던 것이 아니다. “모두가 연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를 잡자”는 의견에 “너무 전통적인 주제가 아닌가”라는 회의론이 제기됐던 것이다. 이에 성 교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학문의 토대를 바라보아야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연구주제가 너무 구체적이면, 자신의 주 연구 분야가 아닌 이들은 참여하는데 한계가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관건은 학문의 토대가 얼마나 단단히 쌓여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성 교수는 ‘학문적 토대’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의 토대를 다듬어 대학원생들의 연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력 향상의 근간에는 교양을 넘어선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에게 지식적 토대는 곧 전문 지식으로 변모할 ‘원석’이기도 하다. 그는 “동·서양을 통틀어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고찰과 인식이 존재한다”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지식 분야에 대한 연구 토대를 다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BK21 사업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성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주 계획

했던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지난 학기만 해도 온라인 회의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에 더 힘이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생들과의 미팅은 중요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덤덤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의 강점은 상호 존중과 활발한 소통이다. 성 교수는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인정받는 교수님들이 서로를 존중해 공통 주제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개진했기에 BK21 사업 최종 선정이라는 성과가 나온 것 같다”며 “BK21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학과 교수님들 역시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 교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며 “이는 답사나 소규모 세미나 등을 통해 다른 어떤 학과보다도 서로 친근하게 교류해 온 사학과의 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우선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실천이 쉬운 것은 아니기에 교육연구팀의 교수들 먼저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도움을, 장기적으로는 연구력의 향상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교수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BK21 지원사업의 가장 큰 취지이기도 하다. 성 교수에 따르면, BK21 지원사업은 교수들이 준비해 만들어낸 사업은 맞지만, 교수 개인의 연구실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학원생을 위한 사업이다. 그는 “물론 대학원생들 역시 자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알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창의성은 기존의 연구 토대를 단단히 마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앞서 뉴턴이 했던 말과도 비슷하게, 성 교수 또한 “공부란 이전 연구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멀리 내다보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팀 내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져 글로벌 문명교류사팀에 있는 교수가 모두 퇴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성과가 나타난다는 모범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 교육연구팀 키워드는 글로벌(global)이다.

(사진=픽사베이)